

은행·증권, 두마리 토끼 잡았다

4대 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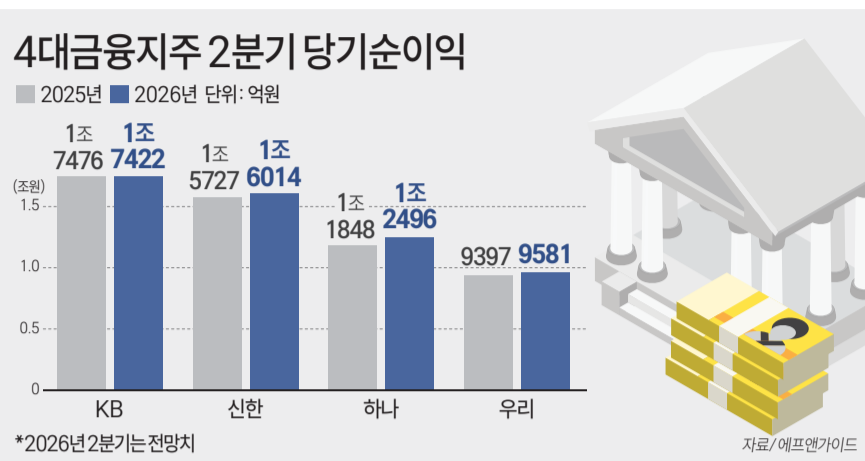
2분기 당기순익 5.5조, 1.8% 상승
상반기 기준 10.9조, 작년 뛰어넘어
원화대출 성장... 안정적 이자이익
'증시 호조' 위탁매매 등 수익 확대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 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5조 4494억원)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10조 9153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10조 325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은 2분기 순이익이 1조 742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7476억원)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1조 5772억원에서 1조 6014억원으로 9.2%, 하나금융은 1조 1848억원에서 1조 2496억원으로 5.5%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금융도 9581억원으로 1년전(9397억원)과 비교해 2.0% 증가가 예상된다.

4대 금융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시에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원화대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순이자마진(NIM) 방어에 성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증시 호조에 따른 증권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와 자산관리(WM)·투자은행(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비이자이익도 증가했다.

금융지주별로는 은행 부문의 견조한 실적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원화대출이 증가하며 이자 수익 기반이 확대됐고,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 계열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트레이딩

관련 수익도 증가해 비이자이익 확대에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매승 LS증권 연구원은 "0.25%포인트(p)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 은행의 최초 1년간 이론적인 이자이익의 증가 폭은 평균 1000억원 수준이며 NIM은 0.025%p 안팎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자이익 증가 영향은 최초 6개월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금융지주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라며 "비이자이익은 이익 창출력이 높은 증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사, 종합 금융플랫폼 전환 지원"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취임식
"스테이블코인 활용 제도적 지원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선도할 것"



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리스·할부금융사가 공유경제 확산과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렌탈 한도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리스·할부금융사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철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식에서 신성장 기반 마련과 규제 완화를 위해 합을 것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여신금융업권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업권 대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카드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포용 금융을 확대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지급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할부 금융업권에게는 신속한 규

신기술금융업권에게는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투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금융업의 대형화 및 투자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기술금융업의 대형화 및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해 신기술 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 글로벌펀드 결성 운용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금융업의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돼 혁신기업 성장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철 전 KB금융지주부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취임식은 전임 여신금융협회장 때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선 기자 wotjs4187@

중소형 건설사 잇단 폐업... 대형사 '기지개'

건설경기, 체급 따라 '양극화'
한계기업 44%, 그중 중소기업 86%
대형사, 이익률 개선 등 바닥 지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별로는 체급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이 급증한 가운데 재무 건전성도 악화됐다.

1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1미만 한계기업 비중은 44.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86%를 차지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은 10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나 늘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착

공 감소로 공사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자재가 상승분을 단기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마저 열외인 소형 건설사는 운전자본 고갈과 금융 접근성 부재가 겹쳐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중 분기별 공사를 하는 27개 기업의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8조 1000억원 안팎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이익률도 개선되는 등 바닥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책임준공과 미분양, 시행사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잔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건설안전과 규제 비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건설경기 침체는 아직 진행형이다. 건설투자 기준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역성장을 지속 중이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함께 PF 부실, 수요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순한 경기순환적 침체를 넘어 수익성, 유동성, 수주 기반이 함께 악화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했다.

박 실장은 "높은 공사비는 기존 수주 현장의 원가율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고금리는 PF와 운전자금의 금융비용을 높이며, 고환율은 수입 자재·장비 및 해외 프로젝트의 환차손 위험을 확대시킨다"며 "세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물량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체감 경기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위기 속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재무적 체력이 빠르게 소진중"이라며 "건설 기업 규모별·업종별 위기 양상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 지원보다 맞춤형 처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영국 금융시장 협력 확대

런던금융특구 시장과 사업 논의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수전 랭글리(Susan Langley)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시장과 콜린 크록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영국 금융시장 협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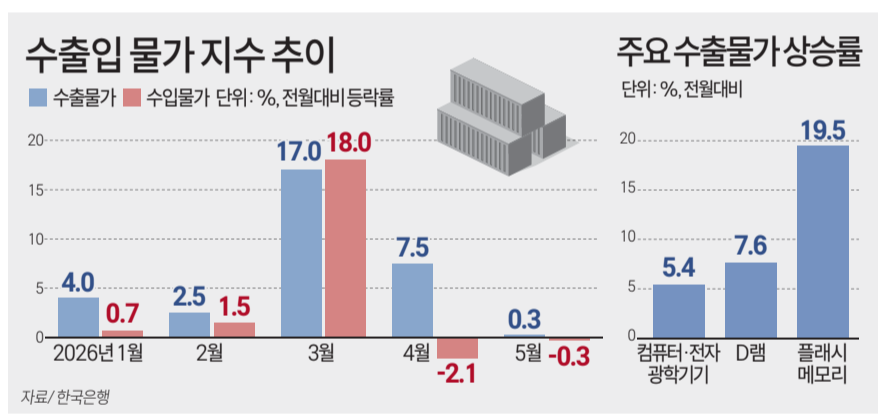
이날 양 기관은 ▲영국 금융시장 동향 및 한·영 금융기관 간 협력 확대 ▲런던금융특구와의 영국·한국 공동투자 협력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 도입 현황과 디지털 금융산업 발전 방향 ▲에이전티브 AI 도입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점한 농협은행 런던지점의 사업성과 및 활

성화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런던금융특구는 런던지점을 기반으로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런던과의 협력은 농협은행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런던지점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및 금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반도체 가격 상승... 수출물가 전년비 47% ↑

한은, 5월 수출입물가·무역지수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25% 하락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맞물려 지난달 수출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했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내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6.9% 올랐다.

수출물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0.2% 올랐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농림수산물도 1.8% 올랐다.

특히 반도체 관련 수출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5.4%, 전년 동월 대비 104.0%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D램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7.6%, 플래시메모리가 19.5%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D램이 259.7%, 플래시메모리가 223.0% 급등했다.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하락했다. 5월 수

입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전월 대비 0.3% 내렸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8%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광산품과 석탄및석유제품 가격이 내린 영향이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4월 배럴당 105.70달러에서 5월 103.15달러로 2.4% 하락했다.

용도별로는 원재료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이 내렸지만 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보합을 기록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상승했다.

무역물량도 늘었다. 5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1차 금속제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7%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6.8% 올랐다.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이 늘어 5.2% 상승했고, 수입금액지수는 21.3% 올랐다.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7%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4.8% 올랐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과 수출물량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36.1%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